
2026 - 6호
(2026. 9월 넷째주)

정책 동향

◆ 국정 동향

◆ 시정 동향

◆ 타시도 동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https://council.jeonnam-gwangju.go.kr> / 062-613-5194

목 차

I. 국정 동향 1

- 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 1
- ②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가게 지역 정착 ‘맞춤형 AI서비스’ 제공 2
- ③ 【금융위원회】 휴면자산 잔액 등 매년 3월말 공개 3

II. 시정 동향 4

- ① 【인구정책과】 정부지원 확대 맞춰 인구·청년정책 재설계 4
- ② 【중소벤처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 중기 찾는다 5
- ③ 【관광개발과】 섬진강권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본격화 6

III. 타시도 동향 7

- ① 【경 기 도】 ‘경기 스타트업 서밋 2026’ 개최 7
- ② 【충 남 도】 ‘119안심콜서비스 홍보 캠페인’ 전개 9
- ③ 【경 남 도】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10

국 정 동 향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현판을 수여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2년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진료와 상담·신고·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되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담당함.
- 세부적으로 응급·고난도 사례 지원과 권역 단위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광역형(17개소)과 인접 지역 사례 지원 및 협력체계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형(388개소)으로 구분되며, 의료현장에서 학대의심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와 보호 연계를 강화함.
- 이번 현판 수여를 통해 지정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아동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판단 가이드는 아동이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의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 등이 수록된 안내문으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의 포스터 형태로 배포될 예정임.

- 행정안전부가 강원특별자치도·경상북도와 함께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말부터 제공함.
- 주민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개인 상황에 맞는 정보와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함께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 강원특별자치도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여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를 통합해 사업주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고 가게 운영에 집중하도록 도움.
- 근로계약 분야에서는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만들고, 필수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임.
- 노무·법률 관련 기본 질문에는 AI 챗봇이 답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함.
-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 지원 정보를 추천하고 신청으로 연계하는 기능도 제공 예정임.
- 경상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함.
- 주민의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함.
- 경상북도 정착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정착 이후까지 개인 상황에 맞는 정착 방안을 제안하고 주거·돌봄·노인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할 계획임.

- 주민이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 도움을 받을 창구까지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마련함.
- 행안부는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의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고, 지역의 중복 구축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국민이 AI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임.

3

금융위원회, 휴면자산 잔액 등 매년 3월말 공개

-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하고, 자체 환급목표 설정 등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함.
-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캠페인에도 휴면금융자산이 1조 5000억 원에 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 먼저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을 공개함.
- 각 금융업권의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함.
- 공개는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수치를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임.
- 아울러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선 및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함.
-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함.

- 이외에도 캠페인 등 환급 촉진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더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게 함.
-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올해 말까지 협회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여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정 동 향

1

인구정책과, 정부지원 확대 맞춰 인구·청년정책 재설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출산·양육·청년 지원 확대에 맞춰 기존 인구·청년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원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구·청년정책 재설계에 나섬.
- 통합특별시는 최근 나주 '3917마중'에서 청년 대표와 인구·청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 정책 방향성 논의 좌담회'를 열어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기존 사업의 조정 방향과 새로운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함.
-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이동성 강화,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제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음.

-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과 청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지역사업 가운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고, 국가사업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먼저 출생기본소득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과 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했음.
- 청년 문화복지카드도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되, 국가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의 정책 수요와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이와 함께 분산된 청년 지원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와 거주 지역 특성에 맞춰 연계하는 ‘청년복지 패키지 프로젝트’ 구상안도 공유했음.
- 통합특별시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효율성·정책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과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인구·청년정책으로 재설계할 계획임.

2 중소벤처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수 중기 찾는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대상’ 후보 기업을 모집함.
- 중소기업 대상은 경영 혁신과 기술개발,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모범기업을 선정·시상함으로써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올해 4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금상·은상·동상을 수여하며, 수상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과 이자 지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대상은 옛 전남지역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생산·매출 분야에서 탁월한 성장을 이룬 기업 ▲신기술 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한 기업 ▲노사분규와 임금체불 없이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 등임.
- 전남광주특별시는 1차 서류심사로 상위 10개 이내 기업을 선정하고, 2차 중소기업 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대상을 선정함.
- 신청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접수하며 기업은 시군,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를 중소벤처기업과(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됨.
-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3)로 문의하면 됨.

3 **관광개발과, 섬진강권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본격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광양·곡성·구례·하동 4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섬진강권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본격화함.
- 통합특별시는 29일 곡성군청에서 ‘섬진강권 4개 시군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어 통합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순환형 투어버스와 섬진강트레일 100K, 체류형 관광상품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음.

-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육성사업’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86억 원을 투입하는 광역 관광사업임.
- 광양·곡성·구례·하동 4개 시군에 흩어진 숙박·미식·생태·웰니스 등 대표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체류형 관광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 먼저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섬진강권을 둘러볼 수 있도록 4개 시군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투어버스’를 10월부터 시범 운영함.
- 또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기존 섬진강 자전거길을 활용한 ‘섬진강트레일 100K’를 개최함.
- 섬진강변을 따라 걷고 달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숙박·미식·웰니스 콘텐츠와 연계해 체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통합특별시는 이를 통해 섬진강권 관광을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며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하고, 4개 시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권을 구축할 계획임.

타 시 도 동 향

1

경기, ‘경기 스타트업 서밋 2026’ 개최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을 개최함.

-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202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스타트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사, 대·중견기업 간의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올해는 국내외 투자자 160여 명이 참여해 480회의 1:1 투자 상담하고, 대·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을 운영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함.
- 전시장에는 156개 스타트업이 인공지능·반도체, 로봇, 바이오, 기후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제품을 선보임.
-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사업확장을 지원하는 기업설명회(IR) 프로그램과 경연도 행사장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임.
- G-스타 오디션 결선, 반려동물 창업 공모 결선, 판교 투자교류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가 주어짐.
-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딥엑스(DEEPX)의 김녹원 대표와 뇌공학 분야 연구를 이어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 세계 최대 스타트업 육성기업(엑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의 레자 카제이(Reza Khaj) 투자 디렉터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하며,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성장,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컨퍼런스도 함께 진행됨.
- 스탬프투어 현장 이벤트를 통해 무인로봇 카페에서 로봇 바리스타가 내린 무료 음료를 제공해 전시 관람과 체험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채용에 관심 있는 참관객을 위한 채용 강연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채용 라운지도 운영함.

- ‘경기 스타트업 서밋 2026’ 사전등록은 10월 13일까지 공식 누리집(g-startupsummit.or.kr)에서 가능하며, 세부 프로그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2

충남, ‘119안심콜서비스 홍보 캠페인’ 전개

- 충남소방본부는 도민의 응급상황 대응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천안흥타령춤축제를 시작으로, 주요 축제와 대규모 행사장에서 ‘119안심콜서비스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 119안심콜서비스는 국민이 평소 자신의 질환,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위급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119 신고 시 해당 정보가 상황실과 출동 구급대에 전달돼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에 활용되는 서비스임.
- 실제 지난 3월 홍성군에서 호흡곤란 환자 신고 당시 119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환자를 소생시키는 등 119안심콜 가입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처치와 이송 효과를 거두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도 소방본부는 캠페인 현장에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도민들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 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가입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임.
- 현재 충남지역 119안심콜 가입자는 5만 586명이며, 고령자·장애인·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함.
- 충남소방본부장은 “119안심콜은 위급한 순간 구급대가 환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며 “등록된 질병정보 등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보호되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함.

-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함.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저소득 어르신으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 실 구입비이며, 안경 구입비는 3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안경 구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됨.
-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34명의 어르신에게 총 1,599만 4,000원의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음.
- 노인복지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력교정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경 구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음.